한국프라스틱조합 이사장 신진문씨 선임

한국프라스틱조합은 새 이사장에 신진문 태광뉴텍 회장을 공식 선임했다. 프라스틱조합은 이국노 전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10년만에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했다.

2월20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신진문 이사장은 경합을 벌였던 화성건설 최정 사장과 서원의 이용석 사장이 양보하면서 단독후보로 나서 사실상 제 14대 이사장으로 결정됐다.

신진문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플래스틱업계에서는 마당발로 통한다.

피복조합 총회에서는 2명의 이사장 후보가 경선을 벌인 끝에 유풍오페럴 류영근 대표가 유임됐고, 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과 밸브조합도 이날 정기총회를 갖고 2001년 사업연도 결산과 2002년 사업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2월22일에는 공구조합, 금속조합, 약품조합이, 25일에는 시멘트, 도금, 광학조합이, 26일에는 자동차, 인쇄정보산업, 용접조합이 정기총회를 갖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22>